

제9차 어항정비계획 첫 해 사업 착수

日, 어항 어촌정비·도로정비·해안 등 5개 사업 추진

올해 일본국 예산 (총 73조 817억엔)이 지난 6월 23일 연립여당, 사회당 등 다수의 찬성으로 정부 원안대로 겨우 성립되었다.

이번 예산성립은 39년전 7월1일의 예산 성립 이래 가장 늦은 사례이다. 예산이 성립됨에 따라 수산청은 올해 어항관계사업의 실시방침을 발표하고 6월 23일부로 관계 도도부현지사에게 배분액을 내시했다.

올해 어항관계사업 실시방침의 요지와 사업별 실시항수와 실시액은 다음과 같다.

1. 어항어촌 정비사업

올해부터 책정된 제9차 어항정비 장기계획 (총 투자규모 3조엔, 계획기간 '94~'99년)에 따라 초년도인 올해에는 어항수축사업, 어항개수사업, 어항국부개량사업등의 계획적 추진을 도모한다.

① 어항수축사업

이 사업은 올해 3월 29일 제129회 국회에서 수정 승인을 받은 어항정비 계획에 따

라 어항시설의 대규모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제9차 어항정비 장기계획으로서 480개항을 대상으로 그 정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올해는 사업비 약 1,893억엔, 국비 약 1,221억엔을 갖고 계속 424개항, 신규 41개항등 모두 465개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② 어항개수사업

이 사업은 어업진흥상 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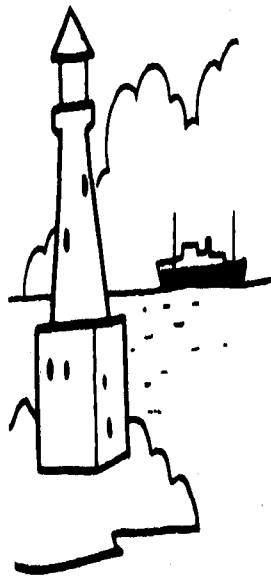
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어항에 대하여 중규모의 정비를 행하는 것으로 제9차 어항정비 장기계획에서는 대략 720개항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올해는 사업비 약 812억엔, 국비 약 486억엔으로 계속 519개항, 신규 150개항 모두 669개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③ 어항국부개량사업

이 사업은 어항시설의 소규모 개량을 실시하는데 따라 어항의 이용효율을 현저히 증진시킬 수 있는 어항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단기간에 정비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는 사업비 약 268억엔, 국비 약 138억엔을 갖고 계속 98개항 신규 303개항등 모두 401개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이 중 어항내에 있어서 어선과 유어선등의 이용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정비를 하는 어항이용 조정사업을 사업비 약 25억엔, 국비 약 13억엔을 가지고 15개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 어항공해 방지 대책 사업

올해는 어항의 박지등에 있어서 오니 준설등을 사업비 8천만엔, 국비 4천만엔으로 1개항에서 실시한다.

⑤ 어업집락 환경정비 사업

이 사업은 어항기능의 증진과 배후집락에 있어서 생활환경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도모키 위해 집락배수시설, 수산음압용수시설, 집락도, 방재안전시설등의 정비를 행하는 것이다.

올해는 사업비 약 1,667억엔, 국비 약 835억엔으로 계속 92지구, 신규 40지구등 모두 132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⑥ 어항환경 정비사업

이 사업은 어항 경관의 보전과 미화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운택한 어항환경을 형성하며, 작업효율과 안전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올해는 사업비 약 63억엔, 국비 약 31억엔으로 계속 51개항, 신규54개항 등 모두 105개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⑦ 어항어촌 종합정비사업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으로서 연안, 낙도에 위치한 소규모 어항에 어항시설과 생활환경시설의 종합적인 정비를 도모하는 것

이다. 올해는 사업비 약 55억엔, 국비 약 34억엔을 갖고 신규 50개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2. 어항관련 도로정비 사업

이 사업은 어업용 휘발유세의 세액으로 인접어항 또는 어항과 주요 연결도로의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는 사업비 약 84억엔 국비 약 44억엔으로 계속 63개항, 신규 6개항등 모두 69개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3. 어항해안사업

올해는 제5차 해안사업5개년 계획 ('91~'95년, 총투자액 1조 3천억엔)중 제4년도로서 해안보전시설 정비사업으로 계속 324개해안, 신규58개해안등 모두 382개 해안을 대상으로 사업비 약 220억엔, 국비 약 114억엔을 갖고 사업을 실시하며, 해안환경정비 사업으로는 계속 97개해안, 신규 9개해안등 모두 106개 해안을 대상으로 사업비 약 122억엔, 국비 약 41억엔을 갖고 사업을 실시한다.

또 해안 배후가 협소한 지역에는 학교, 공원, 하수처리장 등의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

해 공유지조성 호안등의 정비 사업으로 6개해안에 사업비 약 5억 8천만엔, 국비 약 2억 3천만엔을 갖고 사업을 실시한다.

4. 어항재해 복구사업등

어항재해 복구사업등은 공공토목시설 재복구사업비 국고 부담법및 농림수산업시설 재해 복구사업비 국비보조의 잠정조치에 관한 법률등의 근거로, 어항시설, 어항구역내의 해안시설과 연안어항정비 개발시설등의 재해복구를 실시한다.

올해의 재해 복구사업은 사업비 약 6억엔, 국비 약 4억엔으로 92년도 재해의 완료, 93년도 재해(진도 60%)및 올해 재해의 원활한 복구를 도모한다.

5. 만남의 장으로서의 어항어촌 정비사업

이 사업은 어항이나 어촌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살려서 친화하고 살기좋은 어항어촌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어항사업을 비롯, 수산관련사업을 종합적,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계속 26지구, 신규 9개지구등 모두 35개지구의 어항어촌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港內 수질 底質보전기숀 개발키로

자연 조화형 어항만들기 일환으로

일본 수산청은 앞으로 어항 정비사업에 자연환경과 조화된 구조물 공법등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자연환경보전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올해는 모델항을 지정, 실험을 통하여 기술을 축적 보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방파제마운드 사면에 산란장이나 치어보호 공간을 만들거나, 항내의 수질 저질보전을 위해 해수교환 촉진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연조화형 어항만들기 사업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완 경감하는 새로운 인식의 도입이 그 특징이다.

이 사업의 주요골자는 △ 주변환경 등의 조사공법 검토 △ 해수교류의 촉진과 수질보전 △

주변의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구조의 어항시설 정비 △정비후의 추적조사 실시등 어항주변해역의 지역 해상등에 응할 수 있는 자연환경으로 되돌아가는 형의 여러가지 기술을 도입, 그효과를 검증하고 기술을 축적하면서 자연조화형 어항을 점차적으

로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 사업에 도입될 신기술은 수산청 뿐만아니라 타 부처 관계기관이 개발한 기술도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사호안 마운드, 해조이식, 증양식블록등 생물공생형 시설 외에 항주변의 수질과 저질정화를 위한 해수교류형 방파제, 잠제, 사석, 오수처리시설 등의 분야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鹽害 완벽 방지

日 住友시멘트 전기 防蝕시공기술개발

일본 住友시멘트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염해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 방식(防蝕)의 시공을 쉽게 마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전기방식의 핵심부분인 양극시스템을 유리섬유보강모르타르(GRC)제 패널에

끼워 이를 영구형들로 이용토록 한 것으로 현장시공의 생력화와 함께 양극보호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기방식은 이같은 부식의 메커니즘을 역으로 이용, 상시적으로 미약한 방식전류를 콘크리트의 표면부에서 철근으로 흘러 전기 전기화학적으로 방지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부식을 100%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탄메시방식에 의한 종전의 전기방식기술은 시공에 많은 기간이 걸리는데다 정밀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